

'서울신문'

www.seoul.co.kr
since 1904

신·영웅 사진 찢어 붙여 또 다른 신을 창조

전시장에 들어서면 신전 같다. 작가도 “전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사람들이 신전처럼 느끼게 하고 싶었다.”고 한다. 작품은 크게 두 가지. 사진 콜라주와 오일스틱 드로잉이다. 사진 콜라주는 동서양의 신상이나 영웅상 사진을 손으로 일일이 찢어서 해체한 뒤 다시 이어 붙여 또 하나의 신상을 만들어 냈다. 실제 동상으로 만들어 보고 싶었지만 예산 때문에 일단 포기한 상태다.



▲ '유령을 위한 드로잉'.

오일스틱 드로잉은 원본 사진의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롭고 추상적이다. 작가는 “동상으로 만들긴 어려우니 드로잉으로 가볍게 접근했는데, 주변 반응은 더 좋다. 역시 마음을 내려놓고 작가가 하고 싶은 걸 하니 보는 사람들도 그 마음을 알아보는 모양”이라며 웃었다. 이들 작품 주변에는 각종 신상과 성물들이 배치됐다. 작가가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독일, 영국 등 10여개국을 떠돌아다니며 모은 것들이다. 사진도 이때 수집한 500여권의 책에서 나왔다.

작품들을 보고 있노라면 토마스 흉스의 ‘리바이어던’ 표지가 떠오른다. 오글오글 민중들이 모여 절대권력자인 왕을 구성하고 있는 그림이다. 양쪽에서 다 육먹었다. 왕당파는 민중을 등장시킨 것에, 공화파는 결국 결론은 왕이냐며 불편해했다. 작품도 마찬가지다. 특정 신앙

이나 이데올로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잡탕처럼 보일 법하고, 그런 게 무슨 소용이냐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또 하나의 신앙을 만들어 낸 게 아니냐고 물을 법하다.

29일까지 서울 연지동 두산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여는 김기라(38) 작가는 그걸 일러 “조화와 공존을 말하지 않는 발전은 폭력이라는 고민의 반영”이라고 했다. 작가의 삶과도 연관이 있다. 충남 대천, 9대 종손 집안에서 태어났다. 비주류 대학을 다녔고, 그나마도 대학원에서는 전공을 회화에서 조각으로 바꿨다. 영국 유학 때는 제3세계인이라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이 세상의 표준과 그것의 가치는 뭐냐는 질문으로 이어졌다. 작품들은 모두 이 질문 위에 서 있다. 전시 제목 ‘공동선 – 모든 산에 오르라’는 이를 압축한 말이다.

전시의 마지막은 전시장 한가운데 위치한 ‘우리의 잃어버린 마음가짐’이다. 다이아몬드, 금덩어리, 진주 몇 알이 테이블에 놓여 있다. 이것들의 진짜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다.

결혼을 앞둔 작가는 이 작품을 농담 삼아 ‘예물 3종 세트’라고도 부른다. (02)708-5050.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 기사일자 : 2012-03-03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